

2027년 K-IFRS 제1118호 개정 특강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 회계학 시험 대비 강의 원고와 대표문제

김성수 교수 · 2026년 9월 29일 기준 · 50분 특강안

강의 대상: 관세사·감정평가사·공무원 회계학 수험생. 원고의 문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 작성한 연습문제이며, 공식 기출문제가 아니다.

1 강의 운영안

손익계산서 25분: 시행일과 개정 취지, 5개 범주와 필수 소계, 업종별 예외. 기타 개정 5분:
MPM·현금흐름표. 계산·문제풀이 15분: 대표문항을 선별해 풀이. 마무리 5분: 구 기준 선지의 수정
포인트. 수록된 15문항 중 나머지는 복습용으로 활용한다.

학습 목표

- ① 손익계산서의 항목을 다섯 범주로 분류한다.
- ② 영업손익과 재무 및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을 계산한다.
- ③ 주된 사업활동이 있는 기업의 분류 예외를 설명한다.
- ④ 현금흐름표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개정 포인트를 구별한다.

2 시행일과 개정의 성격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공표했다. IFRS 18은 IAS 1의 많은 내용을 승계하지만, 특히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석 공시를 바꾼다. 조기 적용은 허용된다. 최초 적용 시 비교정보를 재작성하는 소급적용이 원칙이다.

시험에서 먼저 구별할 것: 새로운 기준은 대체로 손익의 인식·측정 금액을 바꾸는 기준이 아니라 표시 범주와 공시를 바꾸는 기준이다. 따라서 동일한 자료라도 당기순이익은 같고 영업손익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문제 수정 원칙

“영업외손익”이라는 한 덩어리로 묻는 문제는 2027년 기준의 투자·재무 범주로 다시 분류한다. 간접법 현금흐름표의 출발점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고정한 문제는 영업손익 출발 방식으로 재작성한다. 현금 이자·배당의 활동별 분류를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선지는 수정한다.

3 손익계산서의 5개 범주

① 영업 ② 투자 ③ 재무 ④ 법인세 ⑤ 중단영업. 이는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수익과 비용을 분류하는 범주이다. 현금흐름표의 영업·투자·재무활동 구분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영업 범주

다른 네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손익을 영업에 분류한다. 매출·매출원가·판매관리비가 대표적이다. 제조업의 영업용 유형자산 처분손익이나 일회성 구조조정비용도 다른 범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업이다. “비경상적이므로 영업에서 제외”라는 판단은 틀리다.

투자 범주

다른 자원과 대체로 독립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자산의 손익,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생기는 손익, 관계기업·공동기업·비연결 종속기업 투자 관련 손익을 다룬다. 일반 제조기업의 투자부동산 임대수익, 보유주식 배당수익, 예금 이자수익 등이 대표적이다.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 관계기업 손익은 투자 범주이다.

재무 범주

자금조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부채의 관련 손익과, 그 밖의 부채에서 별도로 식별되는 이자비용·할인액 상각 등 금융 효과를 포함한다. 일반 제조기업의 차입금 이자비용과 리스부채 이자비용이 대표적이다. 차입금 원금 상환 자체는 손익이 아니다.

법인세·중단영업 범주

당기손익에 포함된 법인세비용·수익은 법인세 범주이다. K-IFRS 제1105호에 따른 중단영업 손익은 중단영업 범주에 분류한다. 기타포괄손익을 이 5개 당기손익 범주에 끼워 넣지 않는다.

주된 사업활동 예외

자산 투자나 고객에 대한 금융 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 기업은 일부 손익을 영업 범주에 분류한다. 은행의 대출 이자수익을 일반 제조기업의 예금 이자수익과 똑같이 처리하면 안 된다.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투자 손익은 그 투자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어도 투자 범주라는 예외를 기억한다.

분류 순서와 항목별 판정 | 일반 제조기업을 가정

- ① 중단영업 또는 법인세에 해당하는 손익인지 먼저 확인한다.
- ②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독립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자산 등 투자 범주의 손익을 판단한다.
- ③ 자금조달만을 위한 부채의 손익과 별도 식별되는 이자·금리변동 효과 등 재무 범주의 손익을 판단한다.
- ④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손익을 영업에 둔다. 자산 투자·고객금융이 주된 사업활동인 기업에는 투자·재무 분류 전에 해당 예외를 적용한다. (제1118호 문단 47~68)

매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영업용 기계처분손익 → 영업. 영업용 자산의 처분손익은 매출과 동일한 표시 항목이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영업 범주라는 뜻이다. 일회성 비용과 변동성이 큰 손익도 그것만으로 영업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문단 52, B42, B6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이자수익, 투자부동산 임대수익·공정가치변동손익·관련 감가상각비, 보유 투자주식의 배당수익과 지분법손익 → 일반 제조기업에서는 투자. 투자 범주는 수익만 모으는 곳이 아니다. 해당 자산의 측정·손상·제거에서 생긴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문단 53~58, B47)

차입금 이자비용, 사채의 유효이자율 상각, 리스부채 이자비용 → 일반 제조기업에서는 재무. 자금조달만을 위한 부채는 최초·후속측정 및 제거 손익도 재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생긴 매출채권 손익을 단지 ‘금융자산’이라는 이유로 투자에 넣지 않는다. (문단 59~66, B48)

시험에서 구별할 세 가지

첫째, 손익계산서의 투자·재무 범주는 현금흐름표의 활동 분류와 이름만 비슷하다.

둘째, ‘영업외손익’이라는 종전식 묶음에 의존하지 말고 개별 수익·비용의 발생 원천을 확인한다.

셋째, 기타포괄손익과 지배주주·비지배지분에 대한 당기손익 배분은 5개 당기손익 범주 자체가 아니다. (문단 47, 76)

4 반드시 표시할 손익 소계

영업손익 = 영업 범주의 수익 - 영업 범주의 비용.

재무 및 법인세 차감 전 손익 = 영업손익 + 투자 범주의 순손익. 일반기업의 기본 구조에서 사용하는 소계이다. 특정 금융 제공 활동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기업에는 이 소계의 필수 표시 예외가 있으므로, 시험 문제는 일반 제조기업인지 먼저 확인한다.

당기손익 = 다섯 범주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의 합계. 영업손익과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서로 다른 값이다.

손익계산서의 표시 흐름 | 일반 제조기업

영업 범주: 매출 1,000 - 매출원가 600 - 판매관리비 200 + 영업용 기계처분이익 40 = 영업손익 240

투자 범주: 투자부동산 임대수익 30 + 예금 이자수익 5 = 투자 순손익 35 → 재무 및 법인세 차감 전 손익 275

재무 범주: 차입금 이자비용 25 → 법인세 차감 전 손익 250

법인세 범주: 법인세비용 50 → 계속영업손익 200. 중단영업이 없으므로 당기손익도 200이다. 중단영업손익이 있으면 이를 별도 범주로 더하거나 빼서 최종 당기손익을 구한다.

필수 표시 소계는 영업손익, 재무 및 법인세 차감 전 손익(문단 73 예외 확인), 당기손익이다. 필요하면 기준서의 요건에 맞는 추가 소계를 표시할 수 있다. 매출총이익이나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은 계산 과정에서 유용하더라도 제1118호 문단 69가 모든 기업에 별도로 요구하는 두 새 소계와 혼동하지 않는다. (문단 69~74)

주된 사업활동 예외 | 한 단계 더

자산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이면 그 자산의 손익은 대체로 영업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공동기업·비연결 종속기업 투자 손익은 투자에 남는다. 고객금융이 주된 사업활동이면 관련 대출 이자수익과 관련 자금조달부채 손익을 영업에 분류한다. 무관한 자금조달부채 및 현금성자산 손익에는 요건별 회계정책 선택이 있으므로 모든 은행의 모든 이자를 영업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문단 55~58, 65~66)

표시 방식과 계산 문제 풀이 요령

영업비용은 성격별·기능별 또는 두 기준의 조합 중 유용한 구조를 택한다. 예컨대 기능별 매출원가에는 원재료비·급여·감가상각비가 함께 들어갈 수 있다. 기능별 표시 항목이 있다면 지정된 성격별 비용 정보도 주석에 공시한다. (문단 78~83)

계산은 먼저 5개 범주를 표시하고, 그 다음 영업소계 → 투자손익 가감 → 재무손익 가감 → 법인세 가감 → 중단영업 가감 순서로 진행한다. ‘일회성’, ‘영업외’ 같은 단어만으로 범주를 정하지 않는다.

강의 포인트: 위 숫자 예제에서 기계처분이익 40을 영업에서 빼면 오답이다. 투자부동산 임대수익 30은 일반 제조기업의 독립적 투자수익으로 가정했다. 분류가 달라져도 주어진 자료의 최종 당기손익 200은 그대로이다.

5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MPM

경영진의 기업 전체 성과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 재무제표 밖의 공적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수익·비용 소계가 원칙적으로 MPM 검토 대상이다. “조정 영업이익” 등은 해당 요건을 따져야 한다. 영업손익처럼 기준서가 명시한 소계, 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자체를 곧바로 MPM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MPM이 있으면 하나의 주석에 산출방법, 유용하다고 판단한 이유,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기준서상 소계와의 조정, 조정항목별 법인세 효과와 비지배지분 효과, 변경사항을 공시한다.

간단한 조정 예시

K-IFRS 영업손익 240에 일회성 구조조정비용 20을 더해 경영진이 “조정 영업이익 260”을 대외 발표했다면, 20을 영업 범주에서 없애는 것이 아니다.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익 240을 유지하고 주석에서 260과의 조정을 설명한다.

6 묶음과 세분, 비용의 표시

성격이 같은 항목은 묶고, 중요한 차이를 가진 항목은 세분한다. 본표는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율, 주석은 중요한 추가 설명을 제공한다. 중요한 손익을 “기타”에 지나치게 묶어 성격을 가리면 안 된다.

영업비용을 성격별 또는 기능별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기능별 표시를 쓰는 경우 감가상각·상각, 종업원급여 등 지정된 비용의 성격별 정보도 주석에서 요구된다. 단지 표시 방식만 보고 비용의 인식액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7 현금흐름표에서 함께 바뀌는 것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할 때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일반기업은 이자수취·배당금수취를 투자활동, 이자지급·배당금지급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고객금융이나 자산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인 기업에는 별도 규칙이 있으므로 문제에 기업의 사업 성격을 명시해야 한다.

주의: 손익계산서의 투자 범주와 현금흐름표의 투자활동을 기계적으로 일대일 대응시키지 않는다. 손익은 발생주의 인식 금액이고 현금흐름은 실제 현금 이동이다.

8 대표 객관식 문제 15문항

01 시행과 효과

K-IFRS 제1118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26년 1월 1일 의무 적용한다.
-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적용한다.
- ③ 당기순이익의 측정 자체를 전면 변경한다.
- ④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는다.
- ⑤ 현금흐름표를 폐지한다.

정답 ② | 해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연차 보고기간에 적용한다. 조기 적용이 가능하며 비교정보에는 소급적용한다. ③은 표시·공시 개정을 손익 측정의 전면 변경으로 오해한 선지이다.

02 5개 범주

손익계산서에서 요구하는 다섯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영업
- ② 투자
- ③ 재무
- ④ 기타포괄손익
- ⑤ 중단영업

정답 ④ | 해설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이 당기손익의 다섯 범주이다.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의 범주가 아니므로 ④가 정답이다. 현금흐름표의 활동 분류와도 구분한다.

03 영업 범주

일반 제조기업에서 다른 범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영업 범주에 분류할 항목은?

- ① 예금 이자수익
- ② 차입금 이자비용
- ③ 영업용 기계처분이익
- ④ 지분법이익
- ⑤ 법인세비용

정답 ③ | 해설

영업용 기계는 독립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투자자산이 아니므로 그 처분이익은 영업에 남는다. 예금이자
는 투자, 차입금이자
는 재무, 지분법이익은 투자, 법인세비용은 법인세 범주이다.

04 투자 범주

자산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이 아닌 제조기업의 투자 범주 손익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예금 이자수익
- ㄴ 투자부동산 임대수익
- ㄷ 차입금 이자비용
- ㄹ 법인세비용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정답 ② | 해설

ㄱ 현금성자산 이자와 ㄴ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은 일반 제조기업에서 투자 범주이다. ㄷ 차입금 이자비용은
재무, ㄹ 법인세비용은 법인세 범주이다. 따라서 ㄱ·ㄴ을 고른 ②가 정답이다.

05 계산 영업손익

일반 제조기업의 매출 500, 매출원가 300, 판매관리비 80, 영업용 설비처분이익 2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 15, 차입금 이자비용 10이다. 영업손익은? (단위: 만원)

- ① 120
- ② 125
- ③ 130
- ④ 140
- ⑤ 155

정답 ④ | 해설

매출 500-매출원가 300-판매관리비 80+영업용 설비처분이익 20=영업손익 140이다. 임대수익 15와 차입금 이자비용 10은 각각 투자·재무 범주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한다.

06 계산 중간 소계

05번 자료의 재무 및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은?

- ① 120
- ② 130
- ③ 140
- ④ 145
- ⑤ 155

정답 ⑤ | 해설

05번의 영업손익 140에 투자 범주의 임대수익 15를 더하면 재무 및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은 155이다. 차입금 이자비용 10을 차감하면 다음 단계인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은 145가 된다.

07 주된 사업활동

고객에 대한 대출이 주된 사업활동인 은행이 대출에서 얻는 이자수익의 일반적인 분류로 옳은 것은?

- ① 반드시 투자 범주
- ② 반드시 법인세 범주
- ③ 영업 범주
- ④ 중단영업 범주
- ⑤ 기타포괄손익

정답 ③ | 해설

고객에 대한 금융 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이므로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영업 범주이다. 업종을 보지 않고 모든 이자수익을 투자로 처리하면 안 된다.

08 지분법 예외

관계기업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분법손익의 분류로 옳은 것은? (단, 투자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인 경우도 고려한다.)

- ① 언제나 영업
- ② 투자
- ③ 재무
- ④ 법인세
- ⑤ 중단영업

정답 ② | 해설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손익은 투자 범주에 둔다. 자산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이면 일부 투자손익이 영업으로 옮겨지지만 지분법 적용 손익은 예외이다.

09 현금흐름표

이자·배당 현금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일반 제조기업에 적절한 것은?

- ① 이자수취는 영업활동만 허용된다.
- ② 배당금수취는 재무활동이다.
- ③ 이자지급과 배당금지급은 대체로 재무활동이다.
- ④ 네 항목 모두 활동 분류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 ⑤ 손익계산서 범주와 현금흐름표 활동은 항상 같다.

정답 ③ | 해설

일반 제조기업은 수취 이자·배당을 투자활동, 지급 이자·배당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③이 이에 해당한다. 손익계산서의 투자 범주와 현금흐름표의 투자활동이 항상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10 간접법과 비교정보

제1118호 적용 이후 간접법 현금흐름표 및 최초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당기순이익이 반드시 출발점이고 비교정보는 그대로 둔다.
- ②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사용하고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 ③ 영업현금흐름을 표시하지 않는다.
- ④ 법인세비용을 영업손익에 반드시 포함한다.
- ⑤ 중단영업을 영업손익에 반드시 포함한다.

정답 ② | 해설

간접법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영업손익에서 시작한다. 제1118호 최초 적용에는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④와 ⑤의 법인세·중단영업손익은 영업 범주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11 계산 5개 범주와 소계

일반 제조기업의 매출 900, 매출원가 510, 판매관리비 170, 영업용 설비처분손실 2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 35, 투자부동산 공정가치이익 15, 예금 이자수익 10, 차입금 이자비용 30, 법인세비용 50, 중단영업손실 25이다. 재무 및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은? (단위: 만원)

- ① 200
- ② 230
- ③ 250
- ④ 260
- ⑤ 285

정답 ④ | 해설

영업손익은 $900 - 510 - 170 - 20 = 200$ 이다. 투자 범주의 순수익은 $35 + 15 + 10 = 60$ 이므로 재무 및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은 $200 + 60 = 260$ 이다. 재무비용·법인세·중단영업손실은 이 소계 아래에 놓인다.

12 계산 투자 범주의 순손익

자산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이 아닌 제조기업에 투자부동산 임대수익 80, 해당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12와 손상차손 8,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자수익 5, 관계기업투자 지분법손실 10이 있다. 투자 범주의 순손익은? (단위: 만원)

- ① 45
- ② 55
- ③ 65
- ④ 75
- ⑤ 95

정답 ② | 해설

투자 범주에는 수익뿐 아니라 관련 자산의 후속측정 비용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수익 80-감가상각비 12-손상 8+이자수익 5-지분법손실 10=55이다. 지분법손실을 영업으로 옮기면 오답이 된다.

13 계산 고객금융의 예외

고객에 대한 대출이 주된 사업활동인 기업에서 고객대출 이자수익 450, 그 대출에 사용한 자금조달부채의 이자비용 180, 고객에게 받은 금융서비스 수수료수익 30, 관련 인건비 100이 발생했다. 다른 손익이 없다면 영업손익은? (단위: 만원)

- ① 170
- ② 180
- ③ 190
- ④ 200
- ⑤ 230

정답 ④ | 해설

고객대출 이자수익 450과 관련 자금조달부채의 이자비용 180을 모두 영업 범주에 분류한다. 수수료수익 30과 인건비 100도 영업이므로 $450 - 180 + 30 - 100 = 200$ 이다. 일반 제조기업의 차입금 이자 분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14 계산 간접법 영업현금흐름 ①

일반 제조기업의 영업손익은 260, 감가상각비 40, 영업용 설비처분이익 20, 매출채권 증가액 30이다. 그 밖의 조정항목과 법인세 현금흐름이 없을 때, 간접법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단위: 만원)

- ① 220
- ② 230
- ③ 240
- ④ 250
- ⑤ 270

정답 ④ | 해설

영업손익 260에서 출발하여 비현금 감가상각비 40을 더한다. 영업손익에 포함된 설비처분이익 20은 관련 처분 현금흐름이 투자활동이므로 빼고, 매출채권 증가 30도 뺀다. 따라서 $260 + 40 - 20 - 30 = 250$ 이다.

15 계산 간접법 영업현금흐름 ②

일반 제조기업의 영업손익 500, 감가상각비 60, 매출채권 증가 80, 선급비용 감소 10, 매입채무 감소 25이다. 이자수취 현금 12와 이자지급 현금 20은 별도로 발생했고, 다른 조정항목과 법인세 현금흐름은 없다. 간접법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단위: 만원)

- ① 445
- ② 455
- ③ 465
- ④ 475
- ⑤ 485

정답 ③ | 해설

영업손익 500+감가상각비 60-매출채권 증가 80+선급비용 감소 10-매입채무 감소 25=465이다. 일반 제조기업의 이자수취 12는 투자활동, 이자지급 20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므로 영업활동 금액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9 출제근거 및 참고 기준

이 자료의 객관식 15문항은 제1118호의 개정 논점을 학습하기 위해 새로 작성한 연습문제이다.
관세사·감정평가사·공무원 시험의 공식 기출문항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한국회계기준원, 제·개정현황: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2025.11.21 제정, 2027.1.1 시행).
<https://www.kasb.or.kr/front/board/List2006.do>

IFRS Foundation, IFRS 18 (2025 issued text): 손익 다섯 범주(문단 47~68), 필수 소계(69~74), 비용 표시(78~83),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117~125).
<https://www.ifrs.org/content/dam/ifrs/publications/html-standards/english/2025/issued/ifrs18.html>

IFRS Foundation, IFRS 18 Project Summary (April 2024): 개정의 취지와 시행일. <https://www.ifrs.org/content/dam/ifrs/project/primary-financial-statements/ifrs-standard/projectsummary-ifrs18-april2024.pdf>

현금흐름표 관련 출제근거: 제1118호에 따른 IAS 7 개정 및 IFRS Foundation, IAS 7 Statement of Cash Flows overview.
<https://www.ifrs.org/issued-standards/list-of-standards/ias-7-statement-of-cash-flows/>